

문화산책

문화예산 확대,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강혜경

문학박사·문화기획자



빛쫓아 피는 계절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이어 가...

문화예산 확대가 단순한 예술인 지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문화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두...

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BTS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며...

광주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계는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광주는 '예향(藝鄕)'이라 불릴 정도로 예술적 전통이 깊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이 문화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라는 강력한 문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예산 삭감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고,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문화예산 확대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도 직결된다. 문화는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 창작 기금을 확대하고, 문화산업 육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예산 확대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문화 소비국이 아니라, 문화 생산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전략이다.

기고

이승규

크리에이티브아트 대표



지속가능한 예술을 꿈꾸며

만 비영리에 익숙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창업이라는 영리적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유통이다. 유통의 뜻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활동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셋 번째, 창업이다. 예술가의 창의적인 발상이 익숙한 직업이기에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없다.

통해 자신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시대가 다른 나라와 소통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다.

예술과 사회적 참여(Art & Social Engagement)란, 예술이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 공동체 형성, 공공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취재수첩

광주의 역사가 깃든 광주극장

송태영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광주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광주극장은 1935년 시작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스크린 하나뿐인 단관 극장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의 검열 속에 영화와 예술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강연이나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회 공간을 내어주는 등 존재만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버팀목이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평 곡선 콘크리트 처마를 활용한 현관 캐노피 구조

로 당시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았고, 1950~1960년대 건축에서 활용된 공법이 담겼다.

이처럼 광주극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도 이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 동구에서 주관한 '차 없는 거리'가 8일 금남공원~전일빌딩245 구간에서 진행된다.

사설

여수·고흥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기대

앞으로 여수시와 고흥군 도서지역에 드론 배송 서비스가 상용화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 등이 지난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레저·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3월부터 돌산 진도·작금항 등에 배송 거점을 설치한데 이어 배달점, 드론상행실 등 기반 시설도 마련했으며, 비행로 및 안전 관리시스템, 배송 앱 개발 등 배송 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축했다.

올해에는 배송거점 3개소와 배달점 15개소를 두고 드론 배송·역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선정된 고흥군도 그동안 '드론 실증도시 고흥'을 만들기 위해 드론 배송서비스 체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득량도, 상화도 등에 배송거점 4개소, 배달점 20개소를 두고 드론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득량도, 상화도 등에 배송거점 4개소, 배달점 20개소를 두고 드론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이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길

지속되는 경기불황속에 광주·전남지역에 '골목형 상점'이 뜨고 있다고 한다.

골목형상점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정되면 혜택이 많다.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얻게 되고 특히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은누리상품권 사용까지 가능해진 다.

이 때문인지 광주에는 시행 첫해 북구 전남대후골목형상점지와 함께 골목형상점지 등 2곳이 선정된 뒤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

전남은 강진군 1곳(점포 57개), 곡성군 1곳(점포 73개), 구례군 1곳(점포 24개), 광양시 2곳(점포 61개), 나주시 1곳(점포 32개), 무안군 3곳(점포 111개), 함평군 1곳(점포 27개) 해남군 1곳(점포 59개), 여수시 1곳(점포 97개), 화순군 1곳(점포 119개) 등 13곳 66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1년 2월 지정된 북구 용봉지구 골목형 상점지는 처음에는 287개였던 참여점포가 현재 738개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1월 지정된 광산구 월곡 1동 골목형 상점지도 62개 참여점포에서 87개로 늘어나는 등 해가 갈수록 참여 점포가 늘고 있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사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이들 골목형 상점지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

Table with columns: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여균수, 편집국장 최현수.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and a list of phone numbers for different departments.